

롯데免, 예상수익 낮게 잡았나… ‘최저가 입찰’로 자리 뺏겨

>> 1면 ‘인천공항면세점 입찰’서 계속

국내 면세점업계 순위변동 가능성
세계 1위 면세기업 CDFG도 탈락

유통기업 두곳 면세사업 탈락에
인천공항 면세구역 수익성 경고

롯데면세점은 전 구역에서 탈락해 인천국제공항공사 개항 이래 처음으로 간판을 내리게 됐다. 롯데면세점은 1·2권역과 5구역에 응찰했으나 모두 최저가를 제시했으며, 최고가 사업자 대비 30~40% 가량 입찰가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DF5 권역은 동일사업자 중복금지 조항에 따라 신라와 신세계를 제치고 현대백화점면세점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DF5 또한 입찰가에 따라 선정함으로써 기회를 얻지 못했다.

신라와 신세계가 각각 한 권역씩 차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입찰에서 월등하게 높은 금액을 써내 DF1~5까지 전 구역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에서 공항 이용객들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지하면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경쟁 없이 운영자로 선정될 전망이다. 과거에도 통상 공항면세점은 전체 면세점 매출의 10% 가량을 차지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면세업계 순위 변동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첫 해외 진출지로 인천공항을 낙점하고 반반을 기했던 CDFG의 입찰 실패

도 이번으로 꺾인다. CDFG는 지난 2021년 매출 93억6900만유로(약 13조 1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세계 1위 면세점기업으로, 여유 자금을 토대로 최고가를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예상치를 하회한 입찰가로 탈락했다. CDFG가 제시한 입찰가는 최저가 대비 130~140% 수준으로 알려졌다.

유통 기업 두 곳이 떨어지면서 인천공항 면세구역의 수익성에 대한 논란도 나오고 있다. 최저가 대비 170%에 달하는 임대료를 지불하고도 수익이 확보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2015년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4개 구역에 특허를 낙찰 받았다. 2017년 중국 사드 보복 이후 수익성이 크게 악화해 인천공항 측이 면세점 임대료를 30% 인하했음에도 2018년 2월 3개 구역을 반납했다. 당시 지불한 위약금은 3000억원 수

준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선정결과를 향후 인천공항 면세사업의 수익성을 두고 각 사별 전망이 엇갈린 증거로 지목한다. 입찰에 뛰어들 모든 기업들이 입찰가를 두고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최적가로 썼다”고 밝힌 탓이다.

인천국제공항은 팬데믹 사태 직전 해이자 개항 이래 최대 입국자수를 기록한 2019년 24억3000만달러(약 3조2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전까지 최대 고객이었던 중국이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여객 수 변동이 컸던 것을 생각하면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겠지만, 최근 국내 방한 외국인의 수 증가세와 한류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고려하면 낙관론도 충분히 나올 법하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1면 ‘중대재해처벌법’서 계속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중대처벌법 넘어 산업법도 위험성평가 중심 재 정비”

가이드북에는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방법, 업종별 위험 기계·기구 안전 수칙 등이 담겨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중대처벌법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법령 보완 등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처벌법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나 여러 규칙을 이번 기회에 위험성 평가 중심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 예방 중심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동시에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법령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처벌 대신 예방이란 용어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이란 법적 취지는 살리면서 처벌 위주란 부정적 인식도 줄일 수 있다”며 “고용부도 이 법이 사업주 처벌보다 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 법이라고 밝힌 만큼 법령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통합 포털도 구축될 전망이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현재 50개 이상 안전보건 관련 사이트를 통합해 오는 2026년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안중주 공단 이사장은 “안전보건 관련 정보와 민원, 서비스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대표 산재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 56억 달러 ‘역대최대’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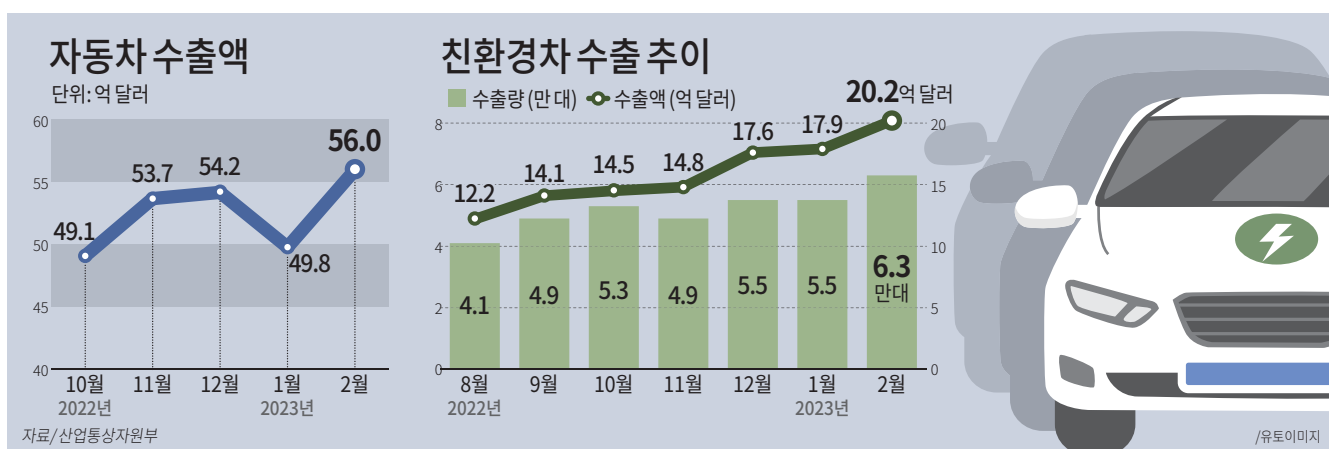
산업부, 총 22.3만대 34.8% 증가
수출 1위 한국지엠 ‘트레일블레이저’
친환경차 수출량 61.6% ↑ 6.3만대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56억달러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완화와 조업일수 증가 영향으로 자동차 생산·내수·수출 모두 두 자릿수 증가했다. 고가의 친환경차 수출 대수와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넘어서며 전체 자동차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월 자동차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34.8% 증가한 22만3000대를 기록했다. 수출액은 56.0억달러로 월간기준 역대 최고로, 지난해 12월 기록을 두 달 만에 다시 경신했다.

수출액 증가는 수출물량 증가와 함께 수출단가가 높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중심으로 친환경차 수출 증가에 힘입은 결과다.

국내 자동차 메이커 중 현대차·기아, 한국지엠, 쌍용차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여, 2019년 5월(22.5만대) 이후 45개월 만에 최고치다. 르노코리아는 주력 차종인 XM3



(아르카나) 수출저조로 수출량이 줄었다.

승용차 수출 1위는 한국지엠의 트레일블레이저(1만8376대)가 차지했다. 이어 아반떼(1만7347대), 코나(1만5520대), 모닝(1만3594대), 니로(1만2600대)가 수출 상위 5개 모델이다.

기아는 니로(1만2600대), 스포티지(1만1311대) 등 인기 SUV 수출이 증가하며 전년동월 대비 57.9% 증가한 9만5568대를 수출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5(7095대), 아이오닉6(5433대) 등 전기차 수출이 증가하며 34.8% 증가한 9만4459대를 수출했다.

친환경차(승용기준) 수출량은 전년

동월 대비 61.6% 증가한 6만3000대,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83.4% 증가한 20억2000만달러를 기록, 월간 수출량과 수출액 모두 역대 최고치를 넘었다.

친환경차 수출액은 작년 8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하며 자동차 총 수출액의 36.1%를 차지한다. 친환경차 연료별로는 전기·수소차가 12억1000만달러로 가장 많고, 하이브리드 5억7000만달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억7000만달러다.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북미와 유럽 연합(EU) 등 주력시장 수출 증가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13.3% 증가한 20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북

미(7.21억달러), 아시아(4.89억달러), EU(3.87억달러), 중남미(2.3억달러), 중동(7800만달러), 오세아니아(1100만달러) 순이다.

국내 자동차 생산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완화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30.2% 증가한 34만4000대, 내수 판매는 대기수요를 바탕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전년동월 대비 19.6% 증가한 14만7000대를 기록했다. 내수 판매 중 국산차는 전년동월 대비 21.5% 증가한 12만5000대, 수입차는 BMW, 아우디 등 하이브리드 모델을 중심으로 전년동월 대비 9.9% 증가한 2만2000대가 판매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UBS, 4.2조에 크레디트스위 인수

SNB “스위스 경제 보호 해결책 찾아”

스위스 최대은행 UBS가 크레디트스위스(CS)를 인수했다. 인수가는 30억 스위스 프랑(약 32억3000만달러, 한화 약 4조2374억원)이다.

19일(현지 시각) 스위스 중앙은행인 스위스국립은행(SNB)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스위스 최대 은행 UBS와 CS의 합병을 공식화했다.

SNB는 “예외적 상황 속 스위스 경제를 보호하고 금융 안정성을 보장하

기 위해 해결책을 찾은 것”이라며 “이는 스위스 연방 정부와 스위스 금융감독청(FINMA)과 SNB의 지원에 따라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SNB는 인수지원을 위해 USB에 1000억 달러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SNB는 “실질적인 유동성 제공을 통해 두 은행 모두 필요한 유동성에 접근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 총액은 30억 스위스프랑, 32억3000만 달러로, CS의 모든 주주는



/크레디트스위스

22.48주당 UBS 1주를 받게 된다. 지난 17일 종가 기준 CS의 주당 가격은 1.86 스위스 프랑이었다. 이를 달러로 전환한 시가 총액은 약 80억 달러다.

이같은 발표에 대해 유럽은 물론 미국에서도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CS의 경우 세계 9대 투자은행(IB) 중 하나로 파산 시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국 실리컨밸리은행(SVB)과는 비교되지 않는 거대한 충격을 던질 것으로 우려됐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스위스 당국의 유동성 지원 발표를 환영했고, 영란은행(BOE)도 UBS의 CS 인수를 지지한다면서 동시에 영국 은행 시스템 역시 건전한 상태로 자본도 충분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